

# 간호과 학생들과 비간호과 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와 결정요인

이 순 희<sup>1)</sup> · 김 정 아<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들은 개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이명하 등, 2003), 간호 연구를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고유한 지식체를 개발하는데도 눈부신 공헌을 해왔다. 또한 건강관리체계 내에서도 환자 치료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놀라운 간호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 될수록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 학문적, 기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간호사 자신의 전문직 간호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양일심, 1996). 또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인식 역시 크게 제고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전문 간호사이미지의 긍정적인 정립이 간호의 발전 뿐 아니라 간호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윤은자, 1996).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간호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변화하는 간호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실제 간호가 갖는 기능과 사회적 역할에 비해 상당히 편향되고 축소된 인식을 바탕으로, 간호사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미림, 1995; 김정아와 이순희, 2003).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간호사들의 위상정립과 역할이해에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쉬우며, 보건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간호인력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전문직이 전문직 단체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대상자들의 요구와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일반인들이 갖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재평가 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보다 나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박성애, 엄앵란, 정순영, 정면숙, 최경숙, 1992). 즉 간호사가 지향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 자신은 물론 타 보건의료 전문인과 일반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이미지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한 형성된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김정아와 이순희, 2003).

특히 이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정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속적 변화의 특성을 보이며 의사결정과 행동결정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간호사가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간호학생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간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바람직한 전문 간호사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이 요구되며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간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어야 한다(문미숙, 1998; 김문실, 이순희, 김숙영, 2002).

이에 본 연구는 간호과 학생과 비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간호사의 이미지를 알아보고 간호사 이미지

주요어 : 간호사,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간호학생

1) 충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joyhippo@hanyang.ac.kr)

투고일: 2006년 1월 18일 심사완료일: 2006년 3월 2일

결정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과 학생과 비간호과 학생들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그 결정요인의 확인을 통해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과와 비간호과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간호과와 비간호과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한다.
- 간호과와 비간호과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을 확인한다.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 간호과 학생과 비간호과 학생간 간호사 이미지와 그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 용어 정의

### • 간호사 이미지

간호 이미지란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념, 생각, 관념의 총합으로서(Kotler & Clarke, 1987; 윤은자, 1995), 본 연구에서는 양일심(199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 •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이라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양일심, 1998), 본 연구에서는 양일심(199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과 학생과 비간호과 학생들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그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관계 분석 연구이다.

### 연구대상

충북소재 일개 간호과와 서울소재 일개 간호과 재학생과 같은 대학 비간호과 재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각각 1,030명과 878명 등 총 1,908명을 편의 표출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 연구도구

#### •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양일심(1998)이 개발한 간호이미지 측정도구를 신뢰도 및 구성 타당도 검증 후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전통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12개, 사회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6개, 전문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6개, 개인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3개 등 총 28개로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과정에서 사회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문항 6개 중 한 문항이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외하고 총 27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양일심(1998)이 개발했을 당시 Chronbach's  $\alpha = .93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간호과 학생의 경우 Chronbach's  $\alpha = .9183$ , 비간호과 학생의 경우 Chronbach's  $\alpha = .9207$ 이었다.

#### •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측정도구

양일심(1998)이 개발한 간호이미지 측정도구를 신뢰도 및 구성 타당도 검증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주관적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9문항, 제도적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5문항, 매체적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4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양일심(1998)이 개발했을 당시 Chronbach's  $\alpha = .876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간호과 학생의 경우 Chronbach's  $\alpha = .8462$ , 비간호과 학생의 경우 Chronbach's  $\alpha = .8025$ 이었다.

###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질문지 작성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해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91일간이었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 간호과와 비간호과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순위 등의 기술통

- 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 간호과와 비간호과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순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 간호과와 비간호과 재학생간 간호사 이미지 및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t-test를 시행해 검증하였다.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및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의 차이를 t-test, ANOVA를 시행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는 SNK test를 시행하였다.
  -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h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구하고,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Factor Analysis를 시행하였다.

## 연구 결과

###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이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1학년이 37%로 가장 많았고, 비간호

과 재학생의 경우는 2학년이 63%로 가장 많았다. 연령은 간호과와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21세~25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간호과와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98% 이상이 미혼이었다.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는 기독교 신자인 경우와 무교인 경우가 각각 37%로 다른 종교보다 많았으며,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는 무교인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다.

간호과나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입원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었고,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가 비간호과 재학생에 비해 입원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 역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과 재학생이 전체의 57%,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는 50%로 역시 간호과 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은 간호과 재학생이나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약 93%의 비율을 나타냈다.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재학생은 간호과가 35%, 그리고 비간호과가 25%로 간호과가 많았다.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보도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과 재학생이 94%에 이르는 데 반해,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는 74%로 나타났다.

### 간호사 이미지

연구대상자들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서술통계 결과가

<표 1>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

(n=1908)

| 변수                      | 구분     | 간호과 재학생<br>(n=1030) |      | 비간호과 재학생<br>(n=878) |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학년                      | 1학년    | 384                 | 37.4 | 329                 | 37.9 |
|                         | 2학년    | 294                 | 28.6 | 219                 | 63.2 |
|                         | 3학년    | 350                 | 34.0 | 319                 | 36.8 |
| 연령                      | 20세 이하 | 239                 | 23.3 | 230                 | 26.3 |
|                         | 21-25세 | 702                 | 68.4 | 621                 | 71.1 |
|                         | 26-30세 | 69                  | 6.7  | 15                  | 1.7  |
|                         | 30세 이상 | 17                  | 1.7  | 8                   | .9   |
| 결혼상태                    | 미혼     | 1009                | 98.2 | 860                 | 98.5 |
|                         | 기혼     | 19                  | 1.8  | 13                  | 1.5  |
| 종교                      | 기독교    | 379                 | 36.8 | 273                 | 31.3 |
|                         | 천주교    | 1541                | 14.7 | 103                 | 11.8 |
|                         | 불교     | 121                 | 11.8 | 128                 | 14.7 |
|                         | 무교     | 378                 | 36.7 | 367                 | 42.1 |
| 본인의 입원경험                | 없음     | 727                 | 70.6 | 641                 | 73.2 |
|                         | 있음     | 303                 | 29.4 | 235                 | 26.8 |
| 가족 입원 시                 | 없음     | 438                 | 42.7 | 433                 | 49.9 |
| 보호자 역할경험                | 있음     | 588                 | 57.3 | 435                 | 50.1 |
| 입원환자의 면회경험              | 없음     | 74                  | 7.2  | 65                  | 7.4  |
|                         | 있음     | 955                 | 92.8 | 812                 | 92.6 |
|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           | 없음     | 669                 | 65.0 | 659                 | 75.3 |
|                         | 있음     | 361                 | 35.0 | 216                 | 24.7 |
|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 | 없음     | 64                  | 6.2  | 224                 | 25.6 |
|                         | 있음     | 962                 | 93.8 | 651                 | 74.4 |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 이미지 측정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였고, 그 다음 순위는 '간호사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였다. 반면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과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항목은 각각 간호과 재학생들의 경우 2순위와 1순위를 차지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간호과 재학생과 비간호과 재학생들의 응답에 근거한 순위를 살펴볼 때 대부분 1~3위 정도의 순위차가

있었다. 그러나 6위 이상 순위에 차이가 나는 항목이 4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상담자이다' 문항의 경우 간호과 재학생들의 응답으로는 전체 16순위를 차지한데 비해 비간호과 재학생들의 응답으로는 전체 26위를 차지해 10순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간호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간호사는 책임감이 강하다'의 경우 간호과 재학생의 순위보다 비간호과 재학생의 순위가 6위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문항에 대해 간호과 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보다 비간호과 학생이 지각하는 이미지가 낮은

<표 2> 간호사 이미지

(n=1908)

| 요인별 항목                  | 간호과 재학생<br>(n=1030)             |         | 비간호과 재학생<br>(n=878)             |         |
|-------------------------|---------------------------------|---------|---------------------------------|---------|
|                         | M±SD                            | ranking | M±SD                            | ranking |
| <b>전통적 이미지 요인</b>       |                                 |         |                                 |         |
| 간호사는 깨끗하고 단정하다          | 3.78±.70                        | 5       | 3.62±.72                        | 3       |
| 간호사는 하는 일이 정확하다         | 3.72±.82                        | 8       | 3.32±.75                        | 7       |
|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지지해준다 | 3.34±.80                        | 18      | 3.08±.82                        | 17      |
| 간호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 3.55±.73                        | 13      | 3.07±.75                        | 19      |
| 간호사는 책임감이 강하다           | 3.90±.76                        | 4       | 3.25±.81                        | 10      |
| 간호사는 헌신적이다              | 3.40±.89                        | 17      | 3.12±.87                        | 15      |
| 간호사는 협조적이며 대인관계가 좋다     | 3.43±.79                        | 15      | 3.19±.76                        | 12      |
| 간호사는 신뢰감을 준다            | 3.57±.73                        | 12      | 3.25±.78                        | 9       |
|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에 즉시 응한다     | 3.02±.84                        | 25      | 2.92±.89                        | 22      |
|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로 불릴만하다      | 3.17±.87                        | 22      | 3.00±.87                        | 20      |
| 간호사는 환자우선주의로 일처리한다      | 3.03±.86                        | 24      | 2.90±.85                        | 23      |
| 간호사는 편안하게 해준다           | 3.22±.77                        | 21      | 3.08±.80                        | 18      |
| <b>소계 총점<br/>평균</b>     | <b>41.20±6.10<br/>3.43± .50</b> |         | <b>37.88±6.41<br/>3.15± .53</b> |         |
| <b>사회적 이미지 요인</b>       |                                 |         |                                 |         |
| 간호사는 지적수준이 높다           | 3.71±.78                        | 9       | 3.18±.76                        | 13      |
| 간호사는 상담자이다              | 3.43±.86                        | 16      | 2.82±.85                        | 26      |
| 간호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 2.89±.87                        | 26      | 2.88±.80                        | 24      |
| 간호사는 건강교육자이다            | 3.60±.78                        | 11      | 3.13±.82                        | 14      |
| 간호사는 어머니같은 역할을 한다       | 3.12±.87                        | 23      | 2.82±.86                        | 25      |
|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환자간호를 수행한다   | 2.77±.90                        | 27      | 2.66±.84                        | 27      |
| <b>소계 총점<br/>평균</b>     | <b>19.55±3.42<br/>3.25± .57</b> |         | <b>17.52±3.40<br/>2.92± .56</b> |         |
| <b>전문적 이미지 요인</b>       |                                 |         |                                 |         |
| 간호사는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 3.95±.77                        | 3       | 3.47±.82                        | 4       |
| 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일한다          | 3.65±.77                        | 10      | 3.23±.73                        | 11      |
| 간호사는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 3.72±.84                        | 7       | 3.44±.76                        | 5       |
|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      | 4.08±.69                        | 1       | 3.67±.75                        | 2       |
| 간호사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  | 3.98±.71                        | 2       | 3.72±.76                        | 1       |
| 간호사는 조직적으로 일처리 한다       | 3.74±.73                        | 6       | 3.38±.76                        | 6       |
| <b>소계 총점<br/>평균</b>     | <b>23.16±3.46<br/>3.86± .57</b> |         | <b>20.95±3.32<br/>3.49± .55</b> |         |
| <b>개인적 이미지 요인</b>       |                                 |         |                                 |         |
| 간호사는 불친절하다*             | 3.29±.80                        | 19      | 3.11±.86                        | 16      |
| 간호사는 이기적이다*             | 3.51±.80                        | 14      | 3.26±.84                        | 8       |
| 간호사는 짜증 섞인 투로 이야기한다*    | 3.26±.86                        | 20      | 2.95±.93                        | 21      |
| <b>소계 총점<br/>평균</b>     | <b>10.07±2.14<br/>3.35± .71</b> |         | <b>9.36±2.33<br/>3.12± .77</b>  |         |

\* 역환산 문항

점수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사는 이기적이다’의 역환산 문항 즉 ‘간호사는 이기적이지 않다’의 경우 간호과 학생의 경우 14순위를 차지한데 비해 비간호과 학생의 경우 8순위를 차지해 해당문항의 경우 간호과 학생의 경우보다 비간호과 학생의 이미지가 높은 점수임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요인별 서술통계 결과, 간호과 재학생이나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전문적 이미지 요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이미지 요인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대한 서술통계 결과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문항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간호사의 친절성’이었고 ‘간호사의 환자 입장 배려’, ‘간호사의 신뢰성’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는 ‘간호사의 환자입장배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간호사의

친절성’,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의 의사보조역할’,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의 3교대 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간호과 재학생과 비간호과 재학생들의 응답에 근거한 순위를 살펴볼 때 대부분 1~3위 정도의 순위차가 있었다. 그러나 5위 이상 순위에 차이가 나는 항목이 3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정신’의 경우 간호과 재학생들의 점수로는 8순위를 차지하였으나 비간호과 재학생들의 점수로는 3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복장, 캡, 유니폼’ 문항의 경우 간호과 재학생들의 점수에 따른 순위는 13순위였으나, 비간호과 재학생들의 경우는 8순위로 나타났다. ‘TV 드라마에서 표현된 간호사’ 문항의 경우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5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10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의 하위요인별 서술통계 결과, 간호과 재학생과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매체적 요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3>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n=1908)

| 요인별 항목              | 간호과 재학생<br>(n=1030) |         | 비간호과 재학생<br>(n=878) |         |
|---------------------|---------------------|---------|---------------------|---------|
|                     | M±SD                | ranking | M±SD                | ranking |
| <b>주관적 요인</b>       |                     |         |                     |         |
| 간호사의 친절성            | 4.49± .65           | 1       | 4.11± .85           | 2       |
| 간호사의 신속성            | 4.12± .71           | 6       | 3.84± .79           | 6       |
| 간호사의 환자입장배려         | 4.43± .65           | 2       | 4.15± .85           | 1       |
|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정신       | 4.07± .82           | 8       | 4.08± .85           | 3       |
| 간호사의 역할             | 4.08± .71           | 7       | 3.77± .80           | 7       |
| 간호사의 건강상담 역할        | 3.83± .78           | 14      | 3.41± .83           | 15      |
| 간호사와의 직접경험          | 4.01± .82           | 9       | 3.64± .91           | 9       |
| 간호사의 신뢰성            | 4.24± .71           | 3       | 3.97± .83           | 5       |
| 간호사의 친절성            | 4.19± .75           | 4       | 4.00± .81           | 4       |
| <b>소계 총점<br/>평균</b> | <b>37.42±4.16</b>   |         | <b>35.05±5.24</b>   |         |
|                     | <b>4.16± .46</b>    |         | <b>3.85± .58</b>    |         |
| <b>제도적 요인</b>       |                     |         |                     |         |
| 간호사의 복장, 캡, 유니폼     | 3.84± .87           | 13      | 3.75± .90           | 8       |
| 간호사의 의사보조역할         | 3.37± .98           | 18      | 3.46± .80           | 14      |
| 간호사의 3교대 근무         | 3.45±1.00           | 17      | 3.06± .93           | 18      |
| 간호사의 학력             | 3.57± .92           | 16      | 3.26± .92           | 17      |
| 간호사의 근무처와 근무환경      | 3.99± .78           | 11      | 3.50± .90           | 11      |
| <b>소계 총점<br/>평균</b> | <b>18.22±2.81</b>   |         | <b>17.06±3.00</b>   |         |
|                     | <b>3.97± .72</b>    |         | <b>3.45± .72</b>    |         |
| <b>매체적 요인</b>       |                     |         |                     |         |
| TV 드라마에서 표현된 간호사    | 4.13± .97           | 5       | 3.53±1.01           | 10      |
| 소설에서 표현된 간호사        | 3.81±1.03           | 15      | 3.33± .98           | 16      |
| 간호사 자신의 자아상         | 3.96± .87           | 12      | 3.46± .92           | 13      |
| 신문, 잡지에 나타난 간호관련 기사 | 3.99± .87           | 10      | 3.48± .91           | 12      |
| <b>소계 총점<br/>평균</b> | <b>15.89±2.90</b>   |         | <b>13.80±2.90</b>   |         |
|                     | <b>3.64± .56</b>    |         | <b>3.41± .60</b>    |         |

### 간호와 비간호와 재학생간 간호사 이미지와 결정요인

간호와 비간호와 재학생간 간호사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사 이미지 총점은 물론, 하위영역인 전통적 이미지 요인, 사회적 이미지 요인, 전문적 이미지 요인, 개인적 이미지 요인 등 모든 영역에서 간호와 재학생이 비간호와 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간호와 비간호와 재학생간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의 총점은 물론, 하위영역인 주관적 결정요인, 제도적 결정요인, 매체적 결정 요인 등 모든 영역에서 간호와 재학생이 비간호와 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4> 간호와 학생과 비간호와 학생간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n=1908)

|                | 간호와 재학생<br>(n=1030) | 비간호와 재학생<br>(n=878) | t       | p-value |
|----------------|---------------------|---------------------|---------|---------|
|                | M±SD                | M±SD                |         |         |
| <b>간호사 이미지</b> | 94.05±12.44         | 85.85±12.38         | -14.141 | <.001   |
| 전통적 이미지 요인     | 41.20± 6.10         | 37.88± 6.41         | -11.508 | <.001   |
| 사회적 이미지 요인     | 19.55± 3.42         | 17.52± 3.40         | -12.864 | <.001   |
| 전문적 이미지 요인     | 23.16± 3.46         | 20.95± 3.32         | -14.046 | <.001   |
| 개인적 이미지 요인     | 10.07± 2.14         | 9.36± 2.33          | -6.850  | <.001   |

<표 5> 간호와 학생과 비간호와 학생간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의 차이

(n=1908)

|                     | 간호와 재학생<br>(n=1030) | 비간호와 재학생<br>(n=878) | t       | p-value |
|---------------------|---------------------|---------------------|---------|---------|
|                     | M±SD                | M±SD                |         |         |
| <b>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b> | 71.58±7.23          | 65.93±8.35          | -15.461 | <.001   |
| 주관적 결정요인            | 37.49±4.16          | 35.05±5.24          | -11.010 | <.001   |
| 제도적 결정요인            | 18.22±2.81          | 17.06±3.00          | -8.703  | <.001   |
| 매체적 결정요인            | 15.89±2.90          | 13.80±2.90          | -15.593 | <.001   |

<표 6>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n=1908)

| 변수                         | 구분     | M±SD        | t or F | p-value | SNK |
|----------------------------|--------|-------------|--------|---------|-----|
| 학년                         | 1학년    | 90.89±13.32 | 1.197  | .302    |     |
|                            | 2학년    | 89.84±13.24 |        |         |     |
|                            | 3학년    | 89.98±12.73 |        |         |     |
| 연령                         | 20세 이하 | 91.00±13.58 | 3.447  | .016    | A   |
|                            | 21-25세 | 89.91±12.81 |        |         |     |
|                            | 26-30세 | 91.06±12.97 |        |         |     |
|                            | 31 이상  | 97.48±11.92 |        |         |     |
| 결혼상태                       | 미혼     | 90.30±12.93 | .486   | .630    |     |
|                            | 기혼     | 88.62± 3.45 |        |         |     |
| 종교                         | 기독교    | 90.21±13.44 | 1.578  | .193    |     |
|                            | 천주교    | 91.96±14.06 |        |         |     |
|                            | 불교     | 89.82±12.38 |        |         |     |
|                            | 무교     | 89.99±12.46 |        |         |     |
| 본인의 입원경험                   | 없음     | 90.46±12.97 | .947   | .344    |     |
|                            | 있음     | 89.82±13.31 |        |         |     |
| 가족 입원 시<br>보호자 역할경험        | 없음     | 90.60±13.00 | -.920  | .358    |     |
|                            | 있음     | 90.03±13.16 |        |         |     |
| 입원환자의<br>면회경험              | 없음     | 90.22±13.14 | .058   | .954    |     |
|                            | 있음     | 90.29±13.07 |        |         |     |
| 가족이나 친지 중<br>간호사           | 없음     | 90.06±12.08 | 1.274  | .203    |     |
|                            | 있음     | 90.90±13.52 |        |         |     |
| 대중매체를 통해<br>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 | 없음     | 85.62±13.34 | 6.467  | <.001   |     |
|                            | 있음     | 91.08±12.85 |        |         |     |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결정요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그리고 간호관련 특성 중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여부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1세 이상의 학생들이 30세 이하의 학생들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보도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간호사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그리고 간호관련 특성 중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 유무와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여부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1세 이상의 학생들이 25세 이하의 학생들보다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환자의 면회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또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보도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과 비간호 재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4개의 하위요인별 서술통계 결과 간호과 재학생이나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전문적 이미지 요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환자, 보호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호이미지를 조사한 양일심(1998)의 연구에서도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은 평점을 보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전문적 이미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 가 1순위, '간호사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 가 2순위로 나타났고, 비간호 재학생은 '간호사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 가 1순위,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 가 2순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복희, 고정은, 전화연(1993)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이미지 조사 연구에서 '간호사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ger (1993)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는 지적수준이 높다'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간

**<표 7>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의 차이 (n=1908)**

| 변수                      | 구분     | M±SD        | t or F | p-value | SNK |       |
|-------------------------|--------|-------------|--------|---------|-----|-------|
| 학년                      | 1학년    | 68.77± 8.95 | .390   | .677    |     |       |
|                         | 2학년    | 69.12± 8.33 |        |         |     |       |
|                         | 3학년    | 69.13± 7.41 |        |         |     |       |
| 연령                      | 20세 이하 | 68.12± 9.21 | 5.133  | .002    | A   |       |
|                         | 21-25세 | 69.10± 7.88 |        |         |     | A     |
|                         | 26-30세 | 71.09± 8.22 |        |         |     | A · B |
|                         | 31 이상  | 72.62± 7.42 |        |         |     | B     |
| 결혼상태                    | 미혼     | 69.03± 8.20 | .971   | .332    |     |       |
|                         | 기혼     | 67.58±10.32 |        |         |     |       |
| 종교                      | 기독교    | 69.32± 7.97 | 1.625  | .182    |     |       |
|                         | 천주교    | 69.70± 8.38 |        |         |     |       |
|                         | 불교     | 68.70± 8.22 |        |         |     |       |
|                         | 무교     | 68.60± 8.36 |        |         |     |       |
| 본인의 입원경험                | 없음     | 69.01± 8.28 | .205   | .838    |     |       |
|                         | 있음     | 68.93± 8.21 |        |         |     |       |
| 가족 입원 시 보호자 역할경험        | 없음     | 68.81± 8.46 | 1.036  | .300    |     |       |
|                         | 있음     | 69.21± 8.06 |        |         |     |       |
| 입원환자의 면회경험              | 없음     | 67.46± 8.67 | 2.201  | .028    |     |       |
|                         | 있음     | 69.10± 8.22 |        |         |     |       |
|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           | 없음     | 68.86± 8.07 | .973   | .331    |     |       |
|                         | 있음     | 69.26± 8.66 |        |         |     |       |
|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 | 없음     | 66.17± 8.79 | 5.910  | <.001   |     |       |
|                         | 있음     | 69.49± 8.07 |        |         |     |       |

호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상담자이다' '간호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등의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양일심(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Kohler and Edward(1990)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란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가 하위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돈순(1995)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송인자(1993)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환자간호를 수행한다'에 낮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간호가 전문적으로 가치와 역할을 인정 받기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과거에 비해 전문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서 간호학생과 비간호 학생 모두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한다'가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전문직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성이면서 간호전문직 발전의 중요한 장애요인인 자율성 부족이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2004). 즉 자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범위 내에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독자적인 간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습득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간호서비스의 질이 우수하고 비용이 효과적인 전문 간호사에 대한 인식 확대 등도 필요하다. 또한 보완적 치료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대체요법의 적극적 활용 등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김희자 등, 2004).

간호학생과 비간호 학생들의 응답에서 6순위 이상 차이가 나는 4항목 중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은 '간호사는 상담자이다' 이고, 이외에 '간호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간호사는 책임감이 강하다'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간호사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건강교육이나 상담자로서의 역할인식이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알코올리즘 상담이나 당뇨교육, 영양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별 간호사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에서는 간호사 이미지 총점은 물론하위영역인 전통적 이미지 요인, 사회적 이미지 요인, 전문적 이미지 요인, 개인적 이미지 요인 등 모든 영역에서 간호과 재학생이 비간호와 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양일심(1998)의 연구에서도 일반인보다는 환자와 보호자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경우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경험 해본 것과 같은 수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보도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간호사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아와 이순희(2003)의 간호이미지에 관한 논문분석 연구에서 간호나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경우에 간호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양일심(1998)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관련 보도를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가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ppman and Ponton(1989)도 대중매체에서 간호의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다른 이유는 보통 대중매체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의 대중매체를 접하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 이미지 향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은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양일심, 1998),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이미지 결정요인을 주관적 요인, 제도적 요인, 매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의 하위요인별 서술 통계 결과, 간호과 재학생과 비간호와 재학생 모두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매체적 요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간호와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주관성 요인에 속하는 '간호사의 친절성'이었고 '간호사의 환자 입장 배려', '간호사의 신뢰성'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간호와 재학생의 경우는 '간호사의 환자 입장 배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간호사의 친절성',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양일심(1998)의 연구결과에서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중에서도 간호사의 '친절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김성연(1987)도 "병원이미지가 병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란 그의 연구에서 친절성, 편리성, 신뢰성의 세가지 요인이 병원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면숙(1995)의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서비스의 이미지 속성으로 인간적 배려, 친절성, 신뢰성, 환자보호, 정확성 등의 속성을 포함한 인간적 차원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문적 지식, 책임감, 사명감, 청결성, 윤리성 등의 속성을 포함한 전문적 차원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현재 많은 병원에서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



하여 친절과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은 간호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매우 타당한 전략으로 사료된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의 의사보조역할',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의 3교대 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간호사의 의사보조역할'을 지적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항목이 간호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와 의사를 상하종속 관계로 인식하고 있고, 대상자 57%가 의사가 간호사를 아랫사람 취급을 한다(이소우와 임숙빈, 1998)는 보고를 볼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간호 전공자들이 전문직 간호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간호가 독립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사보조역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전문적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성은 의사결정과 임상적 판단에 대한 자유를 의미한다(이명하 등, 2003). 따라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과 임상적 판단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의사의 처방을 시행하는 자세보다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임상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에 따른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도 필요하다. 이렇게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동반될 때, 의사를 포함한 일반인들도 간호를 독립된 전문직으로서 인정하는 인식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과와 비간호과 재학생간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의 총점은 물론, 하위영역인 주관적 결정요인, 제도적 결정요인, 매체적 결정요인 등 모든 영역에서 간호과 재학생이 비간호과 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양일심(1998)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의 총점이 일반인 보다는 환자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Kelly (1980)와 Andrew(1981)의 연구에서도 대중은 간호이미지에 대하여 전문직 간호사와의 일대일 접촉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Thomas and Patricia(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간호사와 실제 접촉하였거나 관찰, 개인적 경험을 통해 구축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간호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긍정적 간호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 결 론

본 연구는 간호과 학생과 비간호과 학생들이 지각한 간호

사 이미지와 그 결정요인의 확인을 통해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구축을 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관계분석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충북소재 일개 간호과와 서울소재 일개 간호과 재학생과 같은 대학 비간호과 재학생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각각 1030명과 878명 등 총 1908명을 편의 표출 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질문지 작성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해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91일간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1학년이 37%로 가장 많았고,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는 2학년이 63%로 가장 많았다. 연령은 간호과와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21세~25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간호과와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98% 이상이 미혼이었다. 간호과나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입원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었고,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 역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과 재학생이 전체의 57%,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는 50%로 간호과 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은 간호과 재학생이나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약 93%의 비율을 나타냈다.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재학생은 간호과가 35%, 비간호과가 25%였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과 재학생이 94%에 이르는데 반해,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는 74%로 나타났다.
- 간호이미지는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가 1순위, 비간호과 재학생은 '간호사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가 1순위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요인별 서술통계 결과, 간호과 재학생이나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전문적 이미지 요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이미지 요인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은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가 '간호사의 친절성'으로 나타났으며,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는 '간호사의 환자입장배려'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의 의사보조역할', 비간호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사의 3교대 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의 하위요인별 서술통계 결과, 간호과 재학생과 비간호과 재학생 모두 주관적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매체적 요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 간호과와 비간호과 재학생간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사 이

미지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총점은 물론, 간호이미지의 하위영역인 전통적 이미지 요인, 사회적 이미지 요인, 전문적 이미지 요인, 개인적 이미지 요인과 간호이미지 결정요인의 하위영역인 주관적 결정요인, 제도적 결정요인, 매체적 결정 요인 등 모든 영역에서 간호과 재학생이 비간호와 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간호이미지는 연령, 그리고 간호 관련 특성 중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여부에 따라, 간호이미지 결정요인은 연령, 그리고 간호 관련 특성 중 입원환자를 면회한 경험 유무와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보도를 본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이미지가 전문적 이미지는 높게 나온 것에 비해 사회적 이미지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자율성 증진과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사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난 친절성과 환자를 배려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적용한 후 간호사이미지를 재평가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반인들로 확대 적용된 반복연구를 통해 간호사이미지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것을 제언하며, 연구결과 주요하게 대두된 간호사이미지 결정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문실, 이순희, 김숙영 (2002). 간호대 신입생의 간호관에 대한 연구. *한국질적연구센터지*, 3(2), 6-15.
- 김성연 (1987). *병원이미지가 병원선택에 미치는 영향 :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정아, 이순희(2003). 간호이미지에 대한 논문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9(2), 199-211.
- 김희자, 문미숙, 박미숙, 우재순, 이경숙, 이미현, 이순희, 이재온, 정동신, 정승은, 한혜숙 (2004). *노인을 위한 간호중재: 발관리*. 서울: 청동거울.
- 문미숙 (1998).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간호교육학회지*, 4(1), 15-27.
- 박성애, 엄영란, 정순영, 정면숙, 최경숙 (1992). 간호이미지에 대한 연구: Q방법론 적용. *간호학논문집*, 6(1), 13-23.
- 송인자 (1993). 간호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비교분석. *대한간호*, 32(2), 43-50.
- 양일심 (1998). *간호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자 (1995). *간호단위 관리자의 전문간호 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은자 (1996). 간호사의 전문간호이미지 유형에 관한 연구: Q-방법론 접근. *간호행정학회지*, 2(2), 17-42.
- 이돈순 (1995). *일반인이 인지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하, 장금성, 김인숙, 홍윤미, 하나선, 공병혜, 신미자, 강운숙, 이태화 (2003). *간호전문직과 간호 윤리*. 서울: 현문사.
- 이복희, 고정은, 전화연 (1993). *간호이미지에 대한 연구-대학생을 중심으로*. 동남보건전문대학 논문집.
- 이소우, 임숙빈 (1998). *간호이론과 실제에서의 의사소통론*. 서울: 대한간호협회.
-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2004).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10(2), 17-42.
- 임미림 (1995).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제 권, 64-83.
- 정면숙 (1995). *병원간호서비스의 리포지셔닝을 위한 이미지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ndrew, A. A. (1981). *Image of Nursing : public, Professional and Person Implication, Current Issues in Nursing*, Boston: Blackwell scientific pub.
- Kelly, L. Y. (1980). Nursing Image : A Question of Identity. *Nurs Outlook*, 28(1), 202.
- Kiger, A. M. (1993). Accord and Discord in Students' Image of Nursing. *J Nurs Educ*, 32(7), 309-317.
- Kippman, D. T., & Ponton, K, S. (1989). Nursing's Image on the University Campus. *Nurs Outlook*, 37(1), 24-27.
- Kohler, P. A., & Edwards, T. A. (1990).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Nursing as Career Choice. *J Nurs Educ*, 29(1), 26-30.
- Kotler, P., & Clarke, R. N. (1987).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Thomas, W. B., & Patricia, A. K. (1992). Is Nursing's Image a Deterrant to Recruiting Men into the Profession? Male High School Students Respond. *Nurs Forum*, 27(2), 9-14.

## Image of Nurse and it's Determina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Lee, Soon Hee<sup>1)</sup> · Kim, Jung A<sup>2)</sup>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ju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image of nurse and it's determina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Metho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was used. All 1908 subjects were obtained by convenience sampling from three nursing diploma program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from April 1st to June 30th, 2005.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on SPSS Win 12.0. **Result:** The mean score of 'professional image factor' was higher than any other factors of image of nurse in both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The mean score of 'subjective determinant' was higher than any other determina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The image of nurse and it's determinants of nursing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nursing students'.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rectly showed that the practical strategies would be needed in order to promote the image of nurse of the people who were not be related to nursing.

**Key words :** Nursing student, Nurses, Image of nurse, Image of health personnel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ung A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17 Haendang-dong,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2-2220-0799 Fax: +82-2-2295-2074 E-mail: joyhippo@hanyang.ac.kr